

# 농촌에 꿈 싹고 아름다운 미래로

장쑤 차이나 드림 위해 농촌 부흥의 길 모색



영국에서 중국을 찾은 Frank Hossack씨는 상하이에서 한동안 생활하다가 결국 난징에 정착해서 14년을 살았다. Frank씨가 난징을 좋아하는 이유는 특별하다. “도시에서 차로 20분이면 농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시골에 가려면 운전석 오려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난징까지 오는 수가 있습니다.”

Frank씨는 재치있는 표현으로 농촌에 대한 동경과 사랑을 드러냈다.

21세기 중국인도 똑같이 농촌을 동경하고 사랑한다. “농촌 건설은 그 탐구를 멈춘 적이 없는 시(詩)와 먼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쑤

성 도시농촌계획설계원 기술감독 왕샤오춘(汪曉春)이 말하였다.

**특색화 통해 농촌에 '영혼' 주입**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물에 접해 있으며 돌담, 석원(石院), 석판 길을 간직하고 있는 쉬저우(徐州) 통산구 이장진 니위안촌은 인근뿐만 아니라 멀리에서도 즐겨 찾아오는 옛날 읍동네이다. 바야흐로 '배롱나무꽃이 니위안(倪園)마을에 피어나고 향문(鄉文)이 휘량(呂梁) 고향을 벗어나'의 특색 전문마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농촌은 도시처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근본을 잃고 영혼을 상실하게 됩니다.” 니위안촌 당위원회 우스레이(武世磊) 서기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렇게나 철거하거나 난개발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조금 보수하고 몇몇

집의 타일벽면을 깨끗이 정리하며, 집 앞뒤로 산간마을에 어울리는 거망탈나무, 박달나무, 감나무를 심어 석촌 고유의 형태를 더욱 잘 드러내게 합니다.”

**적정 산업을 통해 농촌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장**  
만약 '영혼'이 농촌에 매력과 기질을 부여하였다면 농촌의 현실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촌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장닝 등산서촌 지역사회 왕자촌은 전통농업 재배, 전통농업 가공 및 수공업, 전통마을 농산물 레크리에이션 및 체육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복구하고 '농업·관광·문화'를 융합한 농촌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였다. 배나무 과수원 600무(1무는 202평에 해당함), 유기농 채소밭 100무, 양어장 100무는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산악자전거길 건설에도 착수하였고 민박 또한 꾸준히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등 산업 전반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배나무 마을은 200만 위안의 집단수익을 올려줄 전망이다.

우스레이 서기에 의하면 마을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있어 맹목적으로 새로운 것만 추구하지 않고 배롱나무, 장미꽃과 과수원을 주로 공략하

었다고 하였다. “니위안에는 배롱나무원이 800무 있습니다. 다음에 장미재배지를 600무로 확대하고 산발적인 과수원 500무를 정리해서 경제적 수익이 높은 피칸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산업을 확대할 수 있고 꽃차, 분재, 말린 꽃 등에, 화장품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로 농촌에 생기 넘쳐**  
“매미의 울음 속에서 무더운 여름방학을 보냈던 8월 말 주넨(祝甸) 고향집에서 시원하게 더위를 날리자. 황금빛 가을로 들어가기 전에 저녁 배로 지나가는 여름을 마무리하자.” ‘쿤산지기(邨伴昆山)’ 워킹 공식계정은 최근 도시인들에게 시골마을로 내려와서 조각배나 카누를 타고 해질 무렵의 경치를 감상할 것을 초청하였다. 이 행사는 양아원(楊雅筠)과 그

녀의 친구들이 계획한 것이다. 그녀는 농촌으로 역류해 창업한 경우에 속한다. 연초 상하이회사 업무를 정리한 후 농촌을 재건하는 지원자가 되었다. 그녀처럼 문화와 식권, 기술을 갖춘 젊은이가 귀향하게 되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뿐만 아니라 도시와 연결하는 교량을 만들어 농촌 발전의 길을 넓혀준다.

“고층 빌딩에 익숙한 어린 친구들이여, 이곳으로 와서 단층집과 물의 고장인 강남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라!” ‘쿤산지기’ 워킹계정은 도시의 수많은 어린이 손넬도 유치하였다. 베테랑 도공 덩웨이젠(丁惟建)은 쭈저우시를 대표하는 고대기와 제작기술의 전승자이다. 그는 도시 어린이들에게 흙과 불을 하나로 아우르는 농촌 문화를 생동감 있게 설명하였다. 농촌 문화는 인지되어야지만 전승이 가능하다.



임대료도 받고 월급도 타는 쓰촨 농민

쓰촨현은 기업이 특색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민이 땅을 임대해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해마다 800위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에서 일함으로써 월임당 평균 1만 위안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 우시(無錫) 사물인터넷기업 2,000개 돌파

영업수익 약 2,100억 위안 도달

2017년 세계 사물인터넷 박람회 소식에 의하면 2016년 말까지 우시는 사물인터넷기업 2,000여개를 확보하였는데 관련 종사자는 15만 명, 영업수익은 약 2,100억 위안이다. 2017년 상반기 사물인터넷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 산업 규모가 1,197억 위안에 도달하였고 동기 대비 24.5% 증가하였다.

2016년 이래 우시는 사물인터넷 특색산업의 건설을 가속화하여 신우구(新吳區), 빈후구(濱湖區), 난장구(南長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그중 우시 스마트센서시스템 산업클러스터는 장쑤에서 유일하게 중국 첫 혁신

형 산업클러스터로 인정되었다. 우시(국가)스마트고통신업단지 중 국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로부터 간판을 수여 받고 성에서 공동으로 건설하는 스마트스프츠산업단지가 이미 건설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의료건강 사물인터넷상품 평가센터'도 우시에서 건설 중에 있다.

우시 사물인터넷산업의 발전은 역사가 길고 출발점이 높으며, 추진력이 강하다. 현재 우시 사물인터넷은 공공 키 등을 두루 아우르는 사물인터넷 산업사슬을 형성하였고 본토 기업, 연구개발기관, 공공서비스 실력 등도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한편 국내외 관련 기업의 집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시는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중전하이강(CETHIK), 인스퍼(Inspur), 사이버노트(CyCybernet) 투자그룹과 차례로 전략적 협력의사를 체결하였고 알리바바, 화웨이 등과도 합작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그중 중wis하이강 협력프로젝트는 2017년 8월 1일에 공식 임주하였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호흡, 대사성 질환, 심혈관 등 분야의 스마트의료 시범사업이 이미 건설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알리바바 사물인터넷 혁신창업(雙創)센터가 이미 운영에 투입되었다. 화웨이의 관련 실험실과 도시 거실 건설의 설계방안이 이미 완성되었다. 타이호 신도시는 인스퍼와 협력의사를 체결하고 우시인 스포브티어 산업단지를 공동 건설하기로 하였다. 사이버노트사는 30여 개 기업과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사물인터넷 투자기금 설립방안을 초보적으로 제정하였다.

작년 흥산(鴻山)사물인터넷마을 계획이 공식 발표된 후 우시는 일부 선도적 중점산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마을 건설에서도 초보적인 성과를 냈다. 올해에는 '도시클라우드브레인(雲腦) 프로젝트'와 '산업부활 프로젝트'

**中国江苏**

新华日报报业集团 主办  
总第253期  
联系电话:0086-25-58680903  
E-mail: xjhww@xhbw.net

欲知更多新闻, 请扫描右侧的二维码。  
中国江苏网

타이호(太湖)의 여름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담수호인 타이호는 우시와 쭈저우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은 타이호의 아름다운 사계절 경치 중의 하나인 여름 풍경이다.  
저우슈위·주후링 촬영

### 장쑤성 긴급 뉴스

#### 장쑤 현대농업과학기술대회, 국내외 귀빈 초청 예정

최근 중국 장쑤-현대농업과학기술대회 조직위원회 연락회의는 난징국제박람회센터에서 12월 1일, 2일 중국 장쑤-현대농업과학기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대회는 약 1,000명의 귀빈을 초청한다.

대회는 과학기술성과 전시, 주제대회, 현대농업발전 정상포럼, 전문가-기업가 장쑤행 등 행사를 설치한다. 또 특별히 아카데미 회원, 농업 관련 대학교와 과학연구원 담당자, 국가현대농업산업기술 시스템, 농업부 중점실현실, 국가농업과학기술 혁신연맹 전문가, 중국 중점 농업과학기술기업 등을 초청해 학술 교류를 진행하는 한편 '신형직업농민 발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난징, 중국 최초 국제평화도시로 선정

'제16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이 최근 난징에서 개최되었는데 중·일·한 3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약 110명 참가하였다. '국제평화도시'는 세계에서 유일한 평화도시협회로 유엔 관련 조직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해당 협회는 전 세계 평화활동을 진행하는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지난 2년 동안 난징대학 및 국제평화연구원과 난징대학교 평화연구원은 공동명의로 '국제평화도시협회'에 신청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올해 8월 31일, 난징은 신청에 통과되었다. 9월 4일, '국제평화도시협회'는 동영상으로 난징이 169번째 국제평화도시로 선정되었음을 전 세계에 발표하였다. 이로써 난징은 중국에서 최초로 해당 조직에 가입한 도시가 되었다.

#### 난징, 국제 모바일게임 어워드 유치

최근에 개최된 제13회 난징소프트웨어 허시(河西)·젠에 게임 및 e스포츠산업 발전포럼에서 국제 모바일게임 어워드(IMGA)가 계약을 체결하고 난징시 젠에구에 영구 입주하였다.

국제 모바일게임 어워드는 2004년에 최초로 개최되었다. 13년 동안 매달 평균 수천 개 모바일 게임 신작을 접수하였으며, '게임계의 오스카로 불린다'. '예를 들면 '앵그리버드' 게임은 인기를 얻기 전에 국제 모바일게임 어워드에 참가해 2008년도 최우수 게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국제 모바일게임 어워드 공동 창시자이자 COO인 장귀창(江國昌)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임 대부분이 대회를 통해 나온다고 하면서 과거 주로 샌프란시스코,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개최하였고 작년 선전에서 제1회 국제 모바일게임 어워드 중국 디비전을 열었다고 소개하였다.

난징 대회는 올해 연말에 개최되며 현재 400여 개의 게임이 지원하였다. 그때가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심사를 거쳐 우승자를 가리며, 우승한 게임은 세계대회에 진출하게 된다.

### 〈중·일·한 시민선언〉 난징서 발표

최근 '제16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이 난징에서 개최되었는데 중·일·한 3국의 사학계 전문가 110여 명이 참석해 연구 토론을 진행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중·일·한 시민선언〉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선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난징대학살은 일본군국주의 중국침략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한 페이지이다. 우리가 난징에 모인 근본적인 취지는 역사를 거울로 삼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 이념을 적극 모색하며, 평화 협력과 공동 번영의 밝은 미래로 나가는 것이다.”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은 중·일·한 3국의 학자와 민간 인사들이 2002년에 발기 및 난징에서 최초로 개최되었고 매년 3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포럼은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연구 토론을 통해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을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를 수호하는 공동된 인식을 달성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언〉은 비록 일본정부가 침략전쟁과 그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중·일·한 3국의 시민은 일찍부터 교류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3국의 학자, 교수, 시민들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포럼을 제16회까지 개최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민간 교류는 역사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선언〉은 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중·일·한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이념적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역사 문화에서도 밀접한 교류를 진행해왔다. 중·일·한 3국 정부도 동아시아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큰 장애로 남아있다. 만약 역사의 아픔을 치우치지 못한다면 동아시아 운명공동체 건설은 기뻐할 수 없게 되며 동아시아 평화도 밝게 전망할 수가 없다.”

### 렌윈강중동아시아 윈윈 협력관계 건설

올해 1월,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밀이 렌윈강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갔다. 올해 4월, 렌윈강 항구는 동쪽으로 가는 국경통과 열차를 맞이하였다. 올해 6월, 러시아 치타이 텐칭(CTTQ) 그룹 대표단이 키르기스스탄으로 가서 약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현지 부문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일대일로” 건설에서 중국과 중동아시아 간 협력의 모범도시인 렌윈강은 윈-윈 방식으로 중동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잘 건설해 나감으로써 협력의 효과를 한층 더 증대시키고 있다.

렌윈강은 중국과 중동아시아의 중요한 협력 플랫폼인 중국-카자흐스탄 물류중계기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국제물류치타이 텐칭(CTTQ) 그룹 대표단이 키르기스스탄으로 가서 약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현지 부문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일대일로” 건설에서 중국과 중동아시아 간 협력의 모범도시인 렌윈강은 윈-윈 방식으로 중동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잘 건설해 나감으로써 협력의 효과를 한층 더 증대시키고 있다.

61%와 70% 증가하였다. 아울러 총 규모 20억 위안에 달하는 상하이협력기구(렌윈강) 국제물류단지 발전기금도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그중 철도 하역장 공사는 이미 프로젝트 입안, 용지 신고, 시공도면 설계 및 심사와 시공 입찰 등을 마무리하였다.

현재 렌윈강 기구 치타이 텐칭그룹은 중동아시아 의약회사와 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관련 상품도 현지 신약 승인에 순조롭게 통과하였고 옥시마트린 주사제, 캡슐 등이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 자식 뒷바라지와 일을 즐기며 사는 길정림 여사



길정림 여사의 최근 모습

그녀는 난징에서 공부하는 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러 왔다가 무려 10년 세월을 보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난징 시엔린의 한국 황소곱창집에서 기자는 난징에서 10년 동안 생활한 길정림 여사를 만났다. 시엔린은 난징의 대학가일 뿐만 아니라 고층빌딩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주변의 아파트단지에는 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점심이 되자 식사하러 오는 손님이 많았는데 한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었으며, 중국인들 대부분은 젊은이였다. 음식점의 주 메뉴는 곱창구이다. 종업원이 곱창을 먹기 좋게 잘라서 불판 위에 올려두고 다시 굽는데 연기는 불판 위에 설치된 환풍기로 배출되었다. 매너지인 길 여사는 주문 받고 서빙하는 등 가게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난징에 처음 왔을 때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나중에 당구장을 차려 6, 7년 경영하였다. 하지만 적자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작년에 남편 친구가 곱창집을 개업하자 길 여사는 도와주러 왔다. 길 여사는 남편이 중국과 중국어를 너무 좋아하고 난징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둘을 데려다 중국어 공부 시키는 것을 고집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약 10년 전에 한국의 가게를 정리하고 아이들과 같이 난징으로 왔다. 당시 큰 애는 9세, 작은 애는 6세였다. 지금 두 아들은 낯

이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이고 하나는 중학생이다. 막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난징에서 다닌 셈이다.

남편은 난징의 한국마트에서 지점을 하고 그녀도 출근한다. 그녀는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일한다. 식당이 집에서 비교적 멀기 때문에 한방중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이들도 자립심을 배워 알아서 밥을 해먹는다고 한다. 길 여사는 아이들이 엄마를 원망하지 않을까 두려

움마가 고생하는 것까지 알아주기 때문에 큰 위안이 된다고 하였다.

애들 아빠는 큰 애가 중국의 칭화대에, 막내는 난징대에 입학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난징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큰 애는 한국과 중국 문화를 모두 잘 배웠다. 길 여사는 두 아들이 지금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난징 사투리까지 구사할 수 있다고 흐트해 하였다. 정웨이창·장웨이징 글/사진

### 장쑤의 한인사회